

민주당 “김준규 위장전입은 범법행위” 한나라 “본인 시인… 꼬투리정치 안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설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스스로 인정,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밤, 갑작스럽게 ‘후보자 가족의 주소이전 관련 해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스로 1992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그 이유로 아내가 교사로 재직했던 강남학군의 한 중학교에 두 딸을 입학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모두 설명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다. 김 후보자의 경우는 단지 공소시효(3년)가 지났을 뿐이다.

따라서 이 위장전입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 위장전입 때문에 나마한 인사가 적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마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때 주양자 전 복지부장관, 장상·장대한 국무총리 후보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등이 같은 이유로 낙마했다.

이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 내정 자조차도 낙마시켰던 범법행위”라면서 “이 정권 아래에서 위장전입은 죄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하니 몰랐을 리는 없었을 김 내정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한나라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위장전입이 용인

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라면 위장전입 때문에 한나라당에 의해 낙마한 인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김 내정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데다 17년전의 과거사”라며 “나무 한그루가 마음에 안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

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청사유서에서 “수사, 행정, 기획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이 기간에 인사청문회 개최 및 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 공개

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채증반 단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 등이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태 - 문재인 한판 붙나

■ 경남 양산 10월 재선거 거물급 대결 촉각

오는 10월 재선거가 펼쳐지는 경남 양산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이 친노인사들의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현·전 정권이 맞대결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일 박 대표 측 관계자는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하지만 원의 대표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출마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시간

문제일 뿐 출마는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가 있다.

물론 여당 대표가 출마할 경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를 갖게 돼 부담이 큰 것이 걸림돌이다. 따라서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막판에 불출마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결정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양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박 대표를 전방위

로 지원할 경우 승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있는 친노세력을 영입, 양산 출마를 요청할 생각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송인배 전 사회조정비서관 등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열기를 선거에 연결시킬 수 있다면 양산이 제2의 ‘노풍’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재야 친노(親盧) 세력을 대표하는 문 전 실장 영입에 신경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문 전 실장이 입당할 경우 최근 구체화 움직임을 띠고 있는 친노 신당과의 창당론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고 민주당이 내건 대통령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인 문 전 실장이 정계 입문에 완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무작정 입당을 추진하진 않으려는 분위기다. 자칫하면 반감만 사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친노세력과 유대감을 형성한 뒤 자연스럽게 대통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문 전 실장을 영입하겠다는 일종의 우회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 당 대표직 승계 관심

박희태 재선거 출마로 중도하차뎀 가능

여권을 뜨겁게 달궜던 한나라당의 ‘9월 조기 전당대회’ 이슈가 최근 동력을 잃으면서 정몽준(MJ·사진)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현재로서는 9월 전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이(친이명박)계의 9월 전대 주장이 친박(친박근혜)계와 중립성향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박희태 대표마저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 최고위원에게로의 대표직 승계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현 한나라당 당헌은 ‘당 대표의 결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 최고위원



중 대표·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박 대표가 대표직을 갖고 재보선에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박 대표의 양산 재선거 출마가 정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 측 한 관계자는 이날 “박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표직 승계의 조건이 성립될 경우 이를 마다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는 대표직 승계의 절차적 조건이 성립되더라도 정치적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의원 “접대비 실명제 재추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변칙운용을 이유로 지난 2월 폐지한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소액분할접대 등 변칙



운용을 이유로 지난 2004년 도입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했으나 이는 향락성 고액접대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접대비 실명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용화 비서관 “靑 생활 건강식품으로 버텨”

광주 출신 정용화(사진)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이 청와대 생활 등에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을 최근 개설한 개인블로그 ‘향기로운 세상’(http://yhnet.tistory.com/)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자문기구인 국제정책연구원(GSI)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7월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정 비서관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난 1년의 소회를 먼저 밝혔다.

정 비서관은 “휴일도 없이 새벽에서 밤늦



게까지 일하는 게 하루 하루의 일상이다. 그러다보니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체력 보강이다. 잠을 푹 자는 게 만고의 보약이겠나 언감생심이다. 다섯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하지만 밑도없는 집중력과 폭넓은 상상력을 보조해줄 식품은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완주 전북지사 MB에 감사편지… 민주 곤혹

민주당 소속인 김완주(사진) 전북지사가 정부의 새만금사업 본격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민주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지사가 지난달 29일 정경길 대통령실장을 만나 44 용지 4쪽에 가까운 분량의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오늘 저와 200만 전북도민들은 대통령님께 큰절을 올립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의 목은 체증이 일시에 속내려갔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당 비주류 모임인 민생정치모임(대표 이종걸 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당원동지들에게 석고대죄 하고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웹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마.2009.08.10~2010.02.28

교육비 0원
전액국비 지원

개강 8월 10일

제작자 1인당 300만원 지원!

중앙 IT 직업전문학교
02-223-0050

김재규 경찰학원의
장적 신호는
계속됩니다!

김재규

광주김재규경찰학원

원어민 1:1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합니다

· 최신 교육부 협력 TOEFL, TOEIC 교육용 문제
· 교육유니버시티와 국어한말을 위해
· 우수 재능 장학금 지급한 교육용 문제

070-7433-0594

동은위지(약원가길목)
임대

· 목장, 또는 사무실 독립사무실을 200평
· 현대식 도시가스, 냉·온수기 시설완비
· 최단시간 임대료 · 중금고, 관리비 포함

임대 면적	2층 110평	3층 110평	6층 80평
-------	---------	---------	--------

임대장소 : 동구대리동 (동부시 뒤, 동명병원 옆)

중앙 B/D

222-4560
011-666-0229